


4. 세부유형별 과실비율 적용기준

가. 교차로(+자로, T자로 등) 사고

(1) 양쪽 신호등 있는 교차로

1) 직진대(對) 직진사고 - 상대차량이 측면에서 진입[차 1]

녹색직진대적색직진					
차1-1		(A) 녹색직진			
	과 실 비 율 조 정 예 시	기본 과실비율		AO	B100
		과 실 비 율 조 정 예 시	A 현저한과실	+10	
			A 중대한과실	+20	
			B 중대한과실		+20
			B 현저한과실		비적용
		※사고발생, 손해확대와의인과관계를감안하여기본과실비율을가(-) 조정가능합니다.			
※舊 201, 301, 302 기준					

사고상황

- 신호기에의해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도로를 이용하여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A차량과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또한 다른 말로는 신호등이 있고 내가 초록불에 직진을 했고 상대방이 빨간불에 들어와서 사고가 났다. 해당 관련 과실 비율은 기본적으로는 초록불에 들어간 내가 0이고 상대방이 100이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내가 현저한 과실이 있을 경우 +10, 중대한 과실은 +20으로 상황에 따라 10에서 20의 과실비율이 증가할 수 있고 그에 따라 10:90 또는 20:80으로 나올 수 있다. 참고 판례는 아래 2쪽 페이지를 참고한다.

기본과실비율해

설 신호기가있는교차로에서신호는양 차량운전자가신뢰하는것으로, A차량은 B차량이 적색신호를 위반하여직진할것을예상하고 주의해야할 이유가없으므로B차량의 일반과실비율로정한다.

제1장 자동차와보행자의 사고

제2장 자동차와 자동차(이륜차포함)의 사고

제3장 자동차와자전거(농기계포함)의 사고

참고판례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30428 판결

신호등의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를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으며, 이른 아침 시간대의 통행량이 많지 않은 교차로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대법원2001. 9. 7. 선고2001다40732판결

다만신호를준수하여진행하는차량의운전자라고하더라도이미 교차로에진입하고있는 다른차량이있다거나다른 차량이그 진행방향의신호가진행신호에서정지신호로바뀐 직후에교차로를진입하여계속진행하고있는것을발견하였다거나또는 그밖에신호를 위반하여교차로를진입할것이예상되는특별한경우라면그러한차량의동태를두루살피면서 서행하는등으로사고를방지할태세를갖추고운전하여야할 주의의무는있다할것이지만, 그와같은주의의무는어디까지나신호가바뀌기전이나그직후에교차로에진입하여진행하고 있는차량에대한관계에서인정되는것이고, 신호가바뀐후 다른차량이신호를위반하여 교차로에새로진입하여진행하여올 경우까지를예상하여그에따른 사고발생을방지하기위한조치까지강구할주의의무는없는것이다.

○대법원1994. 9. 9. 선고94다18003판결 신호에따라운행한운전자가제한속도를초과하여운전한경우라도과속한사정만로그에게 과실이있다고할수없고,그와같이과속을 하지아니하였더라면상대방자동차의신호위반을 발견하는즉시정차또는감속을하여충돌을피할수있는사정이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그 과속운행을과실로볼수있다.

차1-2	녹색직진대녹색이나황색진입적색충돌			
	(A) 적색충돌 (가) 녹색직진진입 (나) 황색직진진입 (B) 녹색직진			
	기본 과실비율		(가) A30 A80	(나) B70 B20
	과실비율 조정예시	①	A(가)교차로 정체중진입	+10
			A 현저한과실	+10
			A 중대한과실	+20
			B 현저한과실	+10
			B 중대한과실	+20

사고상황

- 신호기에의해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있는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이용하여 녹색 또는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후 신호가 바뀔 때까지 아직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한 A차량과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다른 말로는 내가 녹색에 직진을 하고 교차로에 진입을 한 상태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교차로를 못 빠져나간 상태였고 상대방 차량은 적색 신호에서 녹색 신호로 바뀌면서 직진을 했고 교차로에 못 빠져나간 내 차량을 박아서 일어난 사고이다. 해당 같은 경우는 내가 녹색에 직진을 하고 정체로 인해 못 나간 상태이니 내가 30 상대방이 70으로 과실 비율이 인정된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교차로가 이미 정체 중에 내가 진입을 했다면 여기서 과실 비율 +10, 내가 현저한 과실이 있으면 +10, 내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20이다. 상황에 맞게 40, 60, 50, 50, 70, 30으로 과실 비율이 결정날 수 있다. 여기서 내가 황색(주황불)신호에 들어왔다면 과실 비율은 내가 80 상대방이 20으로 잡혀진다. 해당 기본 과실 비율을 토대로 과실 비율이 조정된다. 해당 사고 참고 판례는 6페이지를 참고한다.

기본과실비율해설

A차량이녹색신호에정상적으로선진입하였고, 신호변경시까지교차로를미쳐벗어 나지 못한 상황이므로, 교차로에 후진입하는B차량은 이러한상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점을감안하여양차량의기본과실비율을30:70으로 정한다.

A차량이황색신호에진입하여신호위반을하였다라는점에서과실이매우중하다고할 것이지만, 교차로에후진입하는B차량 역시전방좌우에서이미교차로에진입하여진행 중인차량이있는지여부를살펴보고그러한차량이있는경우그동태를살피면서서행하는

등 사고를방지할태세를갖추고운전해야할 주의의무가있음에도이러한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위반하였다는점에서과실이 인정되므로양 차량의기본 과실비율을80:20으로 정한다.


참고판례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9369 판결

교차로의 신호가 진행 신호에서 정지 신호로, 또는 정지 신호에서 진행 신호로 바뀌는 즈음에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종종 있으므로 신호가 정지 신호에서 진행 신호로 막바뀔 즈음에 진행 신호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비록 자신은 교통 신호를 준수하면서 운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57520 판결

B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진행 방향 신호가 직진 신호로 바뀌어 감속하지 아니한 채 시속 약 60km로 교차로를 진입하면서, 그 진입 전에 이미 위 교차로의 오른쪽에서 정지 신호로 바뀐 뒤에도 계속하여 시속 40~50km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들어오는 A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A가 정지할 것으로만 믿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통과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A의 과실 70%, B의 과실 30%

차1-3	황색직진대적색직진			
	(A) 황색직진 (B) 적색직진			
	기본 과실비율		A30	B70
	과실비율 조정예시	① A 적신호직전진입	+10	
		A 현저한과실	+10	
		A 중대한과실	+20	
		B 현저한과실		+10
		B 중대한과실		+20

사고상황

- 신호기예의해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이용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A차량과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또한 다른 말로는 내가 황색(주황불)에 직진을 하였고 상대방은 적색 신호에 직진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이다. 이런 경우 내가 30 상대방이 70으로 과실 비율이 잡히다. 하지만 여기서 또한 내가 적신호직전에 진입하면 +10, 현저한 과실이 있으면 +10,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20이다. 나와 상대방의 총 과실비율은 100으로 생각하고 해당 조건에 맞춰서 기본과실 비율에 더하면 된다.

기본과실비율해설

- 양차량 모두 신호위반에 해당하지만, 적색 신호에 진입한 B차량의 과실이 더 중하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70으로 정한다.